여름의 것은 여름에게

2d hand-drawn animation

3 min

무더운 여름,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쭈쭈바 하나만 있으면 땀 나는 줄 모르고 뛰어놀던 시절이 있다. 동네 놀이터의 달궈진 정글짐, 매미 소리와 여름밤, 그리고 바보짓할 친구들. 초등학생 시절의 여름은 그러한 아름다운 것으로 차있다. <여름의 것은 여름에게>는 모두의 기억 속에 있을 시퍼런 여름의 것들을 다양한 톤의 파랑으로 그려낸 작업이다.

두 명의 초등학생이 함께 보내는 여름방학의 풍경은 우리의 어린 시절을 닮아있다. 찰랑이는 파란 수박, 상어 바다에 떠 있는 횡단보도, 도랑에서 올챙이 잡기 등 익숙한 풍경 속 초현실적인 장면을 감상하며 모두가 잠시 초등학생 시절 여름의 뜨겁고도 청량한 공기를 떠올릴 수 있길 바란다.